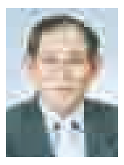
문소관광(주) 학가산 관광(주)

代表 權 世 穆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101번지 (769-800)
의성사무실(054-832-1138~9)
경북안동시 경동대로 653번지
안동사무실(054-854-1515~6)
휴대폰 : 011-505-1138

安東權氏宗報

[월간] 2014年 8月 1日(금요일) ☎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종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權氏 紀元1085年 第 470 號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취임

지난 7월1일 권영진(동정공파. 34세) 33대 대구광역시장 취임식이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5만여 명의 시민과 권영하대구종친회장 및 임원, 문중족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시민이 시장이 되는 날”이란 슬로건을 걸고 그것도 야외에서 열린 취임식으로 거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취임식은 특색 있는 열린 취임식으로 저녁7시부터 시민과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는 멋진 공연과 이벤트로 축제의 분위기로 진행 되었다. 권영진시장의 취임은 우리 권문의 큰 자랑이며 또 서울시 부시장과 노원구 국회의원을 훌륭히 역임함으로써 충분한 경력과 국정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대구역사에 길이 남을 걸로 예상하며 대구 발전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대구종친회 사무국장 권충강〉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인터뷰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20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2층 당선자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박원재 부국장과 인터뷰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포용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대덕특구에서 나오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인터뷰내용을 인용 전재한다.

향후 대전시의 시정방향은 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다. ② 대전이 과거 국토 중심지에서 많은 혜택을 봤고,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됐음에도 지금 대전은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없다.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전의 상징인 대덕특구와 과학벨트의 현안들을 꾸준히 해결해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겠다. ③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의 행정을 펴는 것이다.

이제 대전이 만들어진지 꼭 100년이 됐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 됐다.

변화가 시작됐다. 그 중심에 시민이 있고 시민이 주인이자. 시민들을 열심히 보고 대전 시정도 시민 중심으로 하겠다. 소통과 경청을 토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시정을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시장은 대전출신으로 대전 중.고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20회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여 충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며 현재 운용 중인 119구조대를 창설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대전시 기획실장,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자치행정부장, 청와대 초대 인사비서관, 열린우리당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편〉

권영세 안동시장 취임식 거행

제29대(민선 6기) 권영세 안동시장 취임식이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안동대학교 정형진 총장,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정일 총장, 안동과학대학 권상용 총장, 안동권씨대종원 권계동 상임부총재, 안동종친회 권주연 회장 및 임원, 재경안동향우회 권원오 회장, 각 기관 단체장, 각 문중 대표, 유림 대표, 도의원, 권광택을 비롯한 시의원, 주민 등 1천 2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식전 행사로 권영세 시장이 지난 4년간 공약한 사업과 또 앞으로 추진할 큰 사업들을 20분간 영상으로 방영하고 취임식은 권영세 시장이 취임선서를 했다.

권영세 시장은 안동 출신으로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영양군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인수위원회, 안동시 부시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선 5기 안동시장을 각각 역임했다.

권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민선6기 안동시장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4년 동안 6대 분야 38개 공약사항을 제시하며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이란 슬로건으로 안동을 새롭게 변화하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고 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시한 7대 분야 50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광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권영세 시장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출마자들과 다투지 않았고 조용하게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 시의원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시정을 견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가 끝나자 안동시청 윤동윤. 박진리 두 직원대표는 권영세 시장 부부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어 안동시립합창단은 최상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축배의 노래>를 불렀으며 합창단과 참석자 전원이 <안동시민의 노래>를 부르며 취임식을 마쳤다.

〈보도부장 권영건〉

닭실과 맛질의 영화가 오문을 빛내다

野翁公 諱 檥와 忠定公 諱 橃 (1)

맛질의 世居地 榮華가 한눈에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로 들어서는 산세가 수려하여 인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제협(渚峽)으로 돌아드는 입구에 농암정(農巖亭)영모재(永慕齋)가 자리하여 맛질의 품위를 느끼게 한다.

안으로 들어서니 춘우재종택(春雨齋宗宅)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뒤로 연곡종택(延谷宗宅 28世 聖翊), 함계공(涵溪公)종택(29世 昇彦)이 연이어 있고 언덕위로 매당공(梅堂公)의 함취정(咸聚亭)이 있으며 서쪽으로 옥산정사(玉山亭舍)를 이어 야옹정(野翁亭)이 자리하고 있다. 맛질의 동북쪽에 병암정(屛巖亭 27世 諱:惰)이 있고 시냇가 다리 옆에 가평이씨 정려각(旌閭閣. 23世 尙謹配位)이 있다. 하리면 함포재사에 이르니 추원루(追遠樓)의 넓은 누각이 500년 영화를 말하는 듯 하고 재사의 뒷산에 야옹공(野翁公) 묘소가 있다. 맛질의 500년 세업인 3재사(齋舍) 7정사(精舍) 2정려각(旌閭閣)이 유형의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다.

야옹정(野翁亭)

야옹공(1475~1558)의 학덕을 받들기 위해 아들 심언(審言)이 명종 21년(1566)에 세운 정자로서 제곡리 437번지에 있다. 정면4칸 측면 3칸, 왼쪽으로 6칸의 대청마루가 있고 난간을 돌려 누각 식으로 꾸몄으며 대청앞 기둥위 공포의 장식은 조선조 초기의 양식으로 치미가 있다. 조선 중기 이전의 건축양식으로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0호로 지정되었고 편액은 야옹의 6세손 회(恢)가 썼다.

함포재사(咸浦齋舍)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에 있는 재사로서 20世 야옹공(野翁公)과 21世 거창공(居昌公)및 22世 시(時)욱(旭)담(曇)을 모시고 관리하는 곳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55호이다.

함취정(咸聚亭)

매당공(梅堂公. 諱:旭)을 기린 정자로 매당공이 낙향하여 정자를 짓고 매화를 심었다. 당시 이름 있는 선비들이 모두 모이니 함취정이라 이름하고 매화나무를 심어 매당정이라고도 한다.

춘우재 종택(春雨齋宗宅)

야옹의 손자인 22세 춘우재 권진(權晉)이 세웠다. 제곡리 197번지에 口자형 정면5칸 측면7칸의 7영(楹)집이고, 보통의 격식과 달리 오른쪽에 정면3칸, 측면2칸의 사당이 있으며 조선시대 전형적인 중·상류 민가의 모습으로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송동재사(松洞齋舍)

춘우재(春雨齋 諱:晉)의 묘소를 관리하는 곳으로 공이 임란시 물자를 조달하여 형인 의병장 매당공의 의병활동을 돕고 명나라 楊

△야옹정 ;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437 (경북 유형문화재 230호)

△함포재사 :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505 (경북 문화재자료 455호)

△함취정 : 용문면 제곡리 372-2

△춘우재고택(민속자료102호), 연곡종택(민속자료103호), 농암정, 옥산정사

鎬 군막에 양식과 마초를 공급하여 왜란후 군자감참봉(軍資鑑參奉)에 제수되었다. (제곡 본동에서 서남쪽 약2km에 있음.)

가평이씨 정려각(旌閭閣)

함계공 담(曇)의 4자 23세 상근(尙謹)의 배위로 열려의 정려(旌閭)를 받았으며 묘비문은 권두인(權斗寅)이 지었다.

농암정(農巖亭)

예빈시첨정(禮賓寺僉正 諱:時)의 현손인 26世 농암(農巖)권염(權濂)의 정자이다. 농암공은 학덕이 높은 분으로 자녀교육이 남달라 두 아들(萬樞,萬元)이 대과에 급제하였다.

옥산정사(玉山精舍)

농암공의 차남 옥산공(玉山公) 만원(萬元)을 기려 지은 정자로 옥산공은 식년시 문과 급제하여 성균관 사예(司藝)를 지냈다.

연곡종택(延谷宗宅)

춘우재의 6세손 권성익(權聖翊)이 지은 집으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다. 공은 문집을 남겼으며 이기론의 학맥을 집성(集成)하여 도식화(圖式化) 하였다.

병암정(屛巖亭)

임지왜란시 창의(倡義)한 증좌승지(贈左承旨) 담(曇)의 5세손 성균생원 병암(屛巖 諱:惰)을 기리기 위한 정자로 앞에 연못이 있어 연꽃이 피었으며 정자옆 표송(標松:수령:400년)은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오선정(五先亭) 사빈(士彬)

야옹공과 충재선생의 선친으로 호는 오선정(五先亭)이며 세종 31년(1449년)에 송야촌(松夜村)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24세인 성종 3년(1472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은 하지 않고 도계촌으로 내거(來居)하여, 백년을 이양(頤養)하였는데 가거처향(家居處鄕)이 한가지로 참되고 공경스러워 높은 덕의 소문이 풍문에 퍼져 원근이 모두 존모(尊慕)하였다 한다. 충정공 벌(橃)이 귀히 되어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되었다. 고조부 판서공(諱 靷)은 이태조(李太祖)의 한성윤(漢城尹) 제수를 거절하고 사돈간이며 지기지우인 김상촌(金桑村)과 함께 낙남(落南)하여 송야촌에 은거하면서 송도(松都)를 잊지 않는 뜻으로 송파(松坡)로 자호(自號)하고 여생을 자적하였다.

아들은 의(檥), 벌(橃), 예(橤), 장(檣) 4형제를 두었는데 장(檣)은 중종 8년 식년시 급제하고 또 중종 14년 급제하여 점마별감(別監)을 지내고 기묘명현에 올라 정조 10년 예천의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야옹공(野翁公) 의(檥)

공의 자는 백구(白懼)이고 호는 야옹(野翁)이다. 성종 6년(1475년) 안동 도촌에서 출생하여 중종 2년(1507년) 33세로 사마시에 진사가 되어 의흥현감(義興縣監)을 지냈다. 공은 장자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후학을 길렀다. 문장과 학덕이 높았고 둘째아들 거창공 심언(審言)을 따라 안동에서 제곡(예천군 용문면 渚谷) 맛질로 만년에 서식(棲息)하니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야옹타계시 내외 曾.玄孫이 무려 300여인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이 일러 말하기를 하늘이 ‘大名은 歸 仲氏, 完福은 畀長公(벼슬은 중씨에게 주었고 복은 형에게 돌렸다.)’이라 하여 모두 야옹공(野翁公)을 부러워했다.

〈3면에 계속〉

宗親會長協議會 任員會議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길상)는 7월15일 11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대종원사무실에서 협의회 제 2기 임원회의를 권정달 총재가 참석하고 임원 8명과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길상회장은 협의회가 발족한지 3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총회와 임원회의 그리고 지역별 회의를 가졌는데 대종원이 지향하는 종친회간 협력과 친목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협의회 발족이 곧 안동권문의 단결과 숭조애족사상(崇祖愛族思想)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일하겠으니 임원여러분도 많이 협력을 바란다고 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공사 다망한가운데 협의회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대종원 산하 협의회는 파종회장, 종친회장, 청장년회장, 부녀회장협의회 등 4개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금년에 청년회장협의회(青年會長協議會)가 구성되었고 3년전에 종친회장협의회와 파종회장협의회가 결성되어 대종원발전(大宗院發展)에 크게 기여(寄與)하였으며 특히 지역종친회장협의회(地域宗親會長協議會)는 권길상 회장님이 열성적으로 회를 이끌어 나가 장족(長足)의 발전(發展)을 이룩하면서 친목과 각 종친회장단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획기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대종원에서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이루었으니 모두 여러 임원(任員)들의 노고(勞苦)가 크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첨언하여 안동(安東)권문(權門)은 지난 40여 년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숨은 일꾼(임원)들의 노력과 애족심을 가지고 헌신해 왔기 때문이며 이분들의 공적(功績)을 널리 선양(宣揚)하고 앞으로도 애족정신(愛族精神)을 고양(高揚)시키기 위해 능동(陵洞)에 선양비(宣揚碑)를 세워 이분들의 업적을 길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7월15일 대종원 서울사무소에서 전국종친회장협의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은 대종원 임원수첩 발간에 1기 종친회장은 인적사항만 수록하였는데 2기는 파종회장과 동일하게 사진과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회비도 각 협의회에서 수납하므로 대종원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회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협의회 권영갑 간사는 결산보고를 하고 회장은 회비책정에 1기에 임원진회비를 많이 받아 운영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부담이 되므로 의견을 물은 바 회장단 10만원, 임원 30만원, 협의회장 1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폐회 후 길상회장은 부부양말 2세트를 선물하고 인근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중식을 하면서 작년에 추진하려다 못하였는데 차후 종친회장 모임을 희망자에 한해서 해외에서 갖는 방법을 연구키로 하였다.

〈간사 권영갑〉

安東權氏宗報 | 종시 : 숭조이념확립·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현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권승세
기 자	권영건,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자문위원 :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창, 권태현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

慶 제26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 문화축제 祝

선조님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자랑스런 권문의 번영과 화합을 위한 전국 청·장년들의 문화 축제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오니 경향각지 권문 가족님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10월 18일(토) 10:00~16:00
- 장 소 : 뿌리공원 잔디광장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 34번지)
- 연락처 : 대전종친회 042-522-8751. Fax 042-537-8751
  Cafe. daum,net/kwondaejeon Email : ktjstkd@hanmail.net
  대회장 권용기 010-4404-5400. 준비위원장 권선상 010-6487-5342
- 경기일정
  - 개회식 10:00-경기 10:30~14:30 -다과회 11:00 -노래자랑 14:30
  - 폐회식 15:30
- 오시는 길(고속도로 이용시)
  - 경부고속도로(비룡분기,호남고속도로 서대전분기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안영IC ⇒ 뿌리공원)
  - 호남고속도로(서대전분기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안영IC ⇒ 뿌리공원)

안동권씨 대전 청·장년 회장 권용기